

## 하느님의 강건한 신앙인으로 다시 태어나십시오

김윤희 루카 주교, 트라이밸리 성 정하상·오클랜드 성 김대건 성당 '견진성사' 집전



트라이밸리 성 정하상 한인 천주교회의 39명 견진자들이 견진성사 후 김윤희 주교, 김선류 신부(주교 왼쪽)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에서 견진성사를 마친 후 열린 축하식에서 견진자 대표 유홍식 라파엘(왼쪽)에서 첫번째)과 이은자 마르나(오른쪽 첫번째)가 김윤희 주교와 함께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김윤희 루카 주교(한국 천주교구장)는 트라이밸리 성 정하상 한인 천주교회(주임 김선류 타대오 신부) 26일(일) 오전 8시 30분 미사 중 39명의 견진성사를 집전했다. 천주교구는 사목 방문 및 견진성사를 2년에 한 번, 해외사목지의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다.

김선류 타대오 신부는 "세례성사의 은총을 완성시키고 하느님을 알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받는 데 견진성사의 중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히 한국에서 방문한 김윤희 주교는 "견진성사는 신앙생활의 완성이며 성인이 자율적으로 자기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사명을 갖는 것으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강

건한 신앙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인간의 능력으로 하기 힘든 그 어떤 일도 성령께 간구하면 모두 이뤄주신다."며 성령의 은총을 강조했다.

윤희 루카 주교는 "학교생활과 교리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교리에 이어 두 번의 피정을 통해 더욱 하느님을 향한 믿음이 커졌고 성경에도 많은 관심이 생겼다. 이번 견진성사를 계기로 더욱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고 싶다."라며 기뻐했다.

300여 명의 신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종일관 화목한 분위기에 이뤄진 이날 행사는 강론에 이어 견진사 안수 전례, 학생들의 특송과 꽃다발 증정 등 김 주교의 환영식을 가졌다.

기사/사진 제공: 이수은 루피나

이러 김윤희 주교는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주임 김명식 가브리엘 신부)로 옮겨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미사 중 약 350명의 신자가 참여한 가운데 19명의 견진성사를 집전했다.

김윤희 주교는 "신앙인들은 무엇보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준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을 하자"고 말했다.

이은지 소피아는 "우선 한국 주교님께 견진을 받게 되어 기쁘다. 세례를 받은 후 학업과 직장 때문에 시간에 쫓기며 살았는데 앞으로는 교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변귀태 성우 안도니오는 "주교님께서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을 방문해 부모님같이

축복해 주시는 것 같다. 견진성사는 그동안 받았던 사랑을 하느님께 되돌려 드리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김윤희 주교 방편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오클랜드 성당은 견진성사에 앞서 25일(토) 오전 10시 김명식 신부와 사목위원, 각 단체장, 구역장들의 사목 보고 및 김 주교와의 상견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명식 신부는 "30년 전의 초기 한인공동체가 세워질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 한인사목을 고민해보고 순수한 열정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 그런 참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하자"고 했다.

김 주교는 두 성당의 사목 방편과 견진성사 집전으로 공직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후 29일(수) 한국으로 돌아갔다.

기사/사진 제공: 천종욱 다니엘

## 성소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미 동북부 한인 사제협의회 '성소주일' 행사 개최

【뉴욕】 미 동북부 한인 사제협의회(회장 이환규 안드레아 신부)는 청소년들을 위한 성소주일 행사를 지난 26일(일) 10시 30분부터 3시까지 뉴욕 마리안 슈라인 피정센터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14명의 RYC 청년 봉사자를 포함해 학생과 학부모 5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미사는 백운택 어거스틴 신부(락클랜드 한인성당 주임), 유정현 대건 안드레아 신부(뉴저지 메이플우드 성당 보좌), 김태근 베드로 신부(델라웨어 윌링턴 성 스테파노 한인 공동체 주임), Jim Berning 신부(살레시오회, 성소담당)가 공동집전했다.

성소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어릴 때 이민을 와서 힘든 시간도 있었고 바쁘신 부모님 생활에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지냈다. 그저 친구들과 오락하며 놀기를 좋아했다. 그러면서도 늘 성당 생활은 빠지지 않았고 내 안에 신앙이 점차 자라났던 것 같다. 어느 날 내 인생에서 하느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신학교에 지원했다"고 했다. 이찬 신학생은 "무엇을 해도 무언가 허전한 것이 있었고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모르고 지냈다. 어느날 예수님을 따라 신부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니 갑자기 행복감이 밀려왔다. 그래서 성소를 택하



미 동북부 한인 사제협의회가 개최한 성소주일 행사에 참가한 학생과 학부모가 찬양팀을 따라 노래 부르고 있다.

이러 특별강의가 이어졌는데, Franco Pinto 신부(마리안 슈라인 피정센터 청소년 담당)는 비디오와 간단한 활동을 보여주며 성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성소를 분별할 줄 아는 방법과 중요성을 설명했다. 여성 성소에 대한 강의는 박 마리 세레자 요한 수녀(오순절 평화의 수녀회)는 "가슴에서 들리는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만 움직이면 된다"고 했다.

또한 현재 뉴욕교구 신학생 주재현 베드로와 이찬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떻게 자신들이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체험담을 들려주었다. 주재현 신학

계 됐다"고 했다. 전체 진행을 담당할 RYC 디렉터 김성욱 바오로는 "성소주일 행사를 통해 참가한 학생들이 성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부끄럼에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봉사자 김제이(뉴욕 미드 허드슨 성당)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하느님을 좀더 알고하려고 모였다는 그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백운택 신부가 파견 강복을 주며 "성소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다. 하느님 앞에 똑바로 서서 자신있게 응답하라"며 참가한 학생들을 격려했다.

기사/사진 제공: 김성욱 바오로

## '생명의 문화' 건설에 그리스도인들이 적극 동참해야

「생명의 복음」 반포 20주년, 이용훈 주교 생명 주일 담화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3일 생명 주일을 맞아 담화를 발표하고 '생명의 문화' 건설에 그리스도인들이 적극 동참하기를 호소했다. ▶관련기사 9면

이 주교는 담화 '생명의 복음을 경축합니다-「생명의 복음」 회칙 반포 20주년에 즈음하여-'를 통해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생명을 거스르는 죄의 구조들이 죽음의 문화를 부추기며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의식을 마비시켜 사회가 선과 악을 혼동하는 심각

한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 주교는 경제 제일주의 과학기술 만능주의는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가져다줬지만, 불행하게도 그에 비례하여 생명의 가치를 위협하는 '죽음의 문화'를 양산했다"고 지적하면서 "과학기술은 인간과 인간의 총체적 발전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주교는 「생명의 복음」반포 2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생명주일을 맞아 생명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생명의 문화 건설을 위해 △사목자 △신자 가정 △신자 임업자 △신자 의료진과 생명과학자 △신자 언론인들이 특별히 생명 수호에 앞장서기를 요청했다.

이 주교는 "교회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인 고의적인 낙태와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안락사, 자살, 사형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가톨릭 교회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교회 가르침과 삶 사이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pbc.co.kr

# KGL

## One STOP 종합 물류 기업



**해상운송**



**특수화물**



**항공운송**



**3PL**



**KGLmall**  
한국상품관 오픈  
www.kglmall.com (B2B 거래상당)



**현대택배**  
HYUNDAI LOGISTICS  
취급점 수시 모집



**KGL Networks**

Office : (201) 750-3535 / (201) 750-3533  
Korea : +82 (70) 8635-2188  
Email: express@kglnetworks.com  
230 Pegasus Ave, Northvale, NJ 07647, USA

